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나서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11개 읍·면 순회교육 본격 착수

청정 진안의 활력을 이끄는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연합회장 양희연)가 8월 20일부터 11개 읍·면 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순회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이번 순회교육은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가 민간경상보조사업을 통해 직접 기획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한국생활개선 진안군연합회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진안군이 지표로 삼은 ‘청정 진안, 활력이 넘치는 건강 치유도시’를 농촌 현장에서 앞장서 실천하고, 여름철 안전한 영농 환경 및 저탄소 농업 문화를 조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교육 첫날인 20일 오전 11시 진안읍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백운면과 상수면에서 교육이 연이어 진행되었다. 연합회는 다음 주 24일, 25일, 26일까지 사흘간 남은 읍·면을 모두 순회하며 교육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요 교육 내용은 최근 지속되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한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및 안전 수칙 교육과 △청정 진안의 자연 가치를 담은 친환경 재료 활용 포도비누 만들기 과제 실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과제교육인 친환경 포도비누 만들기는 일상 속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농촌형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실습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치유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연합회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운동을 결의했다. 영농 현장에서는 △농경지 주변 폐비닐 및 폐농자재 수거, △불법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농기계 공회전 자제, △비료 및 농약의 정량 안전 사용을 실천하고, 일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애용하기 등 저탄소 생활화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청정 진안의 활력을 이끄는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가 8월 20일부터 11개 읍·면 지회 회원을 대상으로 ‘농촌 여성 리더 역량 강화 순회교육’에 본격 돌입했다.

환경 예방 및 안전 수칙 교육과 △청정 진안의 자연 가치를 담은 친환경 재료 활용 포도비누 만들기 과제 실습으로 구성됐다. 특히 이번 과제교육인 친환경 포도비누 만들기는 일상 속 화학제품 사용을 줄이고 수질 오염을 방지하는 ‘농촌형 탄소중립 실천’의 일환으로 기획되어 회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회원들은 실습을 통해 환경 보호를 실천하고 치유의 가치를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연합회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운동을 결의했다. 영농 현장에서는 △농경지 주변 폐비닐 및 폐농자재 수거, △불법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농기계 공회전 자제, △비료 및 농약의 정량 안전 사용을 실천하고, 일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애용하기 등 저탄소 생활화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연합회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 운동을 결의했다. 영농 현장에서는 △농경지 주변 폐비닐 및 폐농자재 수거, △불법 쓰레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 금지, △농기계 공회전 자제, △비료 및 농약의 정량 안전 사용을 실천하고, 일상에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장바구니 애용하기 등 저탄소 생활화에 집중하기로 뜻을 모았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도민·장애인체전 시상품 ‘빠망이 인형’ 제작

진안군, 대회 공식 마스코트 활용… 종목별 시상품으로 지급

진안군은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와 제20회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진안군 대표 캐릭터를 활용한 대회 공식 마스코트 ‘빠망이’를 활용한 인형을 제작해 종목별 시상품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두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선수단과 관계자가 참여하며, 도민체전은 38개 종목, 장애인체전은 19개 종목의 경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군은 선수들이 현장에서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낸 성과가 단순한 기록을 넘어, 진안에서의 기억으로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상징성을 가진 시상품을 마련했다. 이번 대회의 공식 마스코트인 빠망이는 진안의 대표 캐릭터이며 빨간 말 인형으로 말의 귀를 닮은 마이산을 형상화한 것이다. 건강과 활력을 상징하는 붉은색의 진안홍삼의 우수성을 보여준다. 빠망이 인형은 종목별 시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지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 장애인 생활체육 민속경기 대회’ 무주서 열려

무주군에서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와 선수들의 교류·화합을 위한 민속경기대회가 열렸다. 20일 군에 따르면, ‘2026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 생활체육 민속경기 대회’가 지난 19일 무주국민체육센터에서 선수와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가 주최하고 무주군장애인체육회



가 주관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무주군한궁협회와 무주군 장애인단

체가 후원해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개회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참가 선수들은 예선과 결승 경기를 거쳐 고리 걸기와 투호, 제기차기, 한궁 등 4개 종목에서 실력을 겨뤘다. 종목별 우승은 고리 걸기 설천면 이복동 선수, 제기차기 무주를 이명열 선수, 투호 안성면 정래욱 선수, 한궁 무주를 박은정 선수가 차지했다. /무주=손홍기 기자



무주군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2026 을지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국가 비상사태 대비 ‘을지연습’

무주군,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실제훈련 등 실시

무주군이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한 ‘2026 을지연습’에 돌입한 가운데 실전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훈련을 이어가고 있다. 무주군은 20일 공습 대비 민방위훈련과 연계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무주소방서가 함께했으며 무주를 주된 100여 명이 참여해 화재 대피 등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에 동참했다. 21일에는 국가중요시설 테러 대응을 위한 실제훈련이 진행됐다. 이번 훈련에는 무주군과 진안·무주대, 무주양수발전소, 무주경찰서, 무주소방서, 한국전력 무주지사 등이 참여한다. 훈련은 드론과 적군 특수부대 침투 등 복합 테러 상황을 가정한 상황인 지부터 현장 출동과 진압, 사후 복구

까지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26 을지연습’은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번 을지연습은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실전적 위협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체계 가동과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무주군은 연습 첫날인 지난 18일 새벽 공무원 불시 비상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종합상황실과 재난안전상황실을 가동하고 본격적인 전시 임무 수행 절차에 들어갔다. 또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전시 현안과제 토의와 도상연습을 진행하며 전시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무주=손홍기 기자

장수군, 제433주기 의암주논개 추모제 봉행

장수군은 지난 19일 장계면 의암주논개생가지에서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와 장계어울림회가 주관한 ‘제433주기 의암주논개 추모제’를 봉행하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의암주논개의 숭고한 충절을 기렸다. 이날 추모제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박용근 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의 추모사, 서문유식 장계어울림회 회장의 약사보고, 유금선 장수뽕시낭송문학원의 헌시낭송, 논개 충절무용단의 논개충절무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현관과 제집사를 소개하는 헌관분방기를 진행한 뒤 의암주논개의 충절정신을 기리는 제례봉행과 헌공다례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이어졌으며, 주요 내빈의 화하로 추모행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례에는 이정우 장수군 부군수가 초헌관, 정상숙 군의회 의장이 아헌관, 박명규 새전북신문 대표가 중



현관, 한선미 군의원이 다헌관을 맡아 의암주논개의 숭고한 희생과 충절의 뜻을 기렸다. 의암주논개는 1574년 장계면 대곡리 주촌마을에서 태어나 1593년 진주성 전투 당시 왜장을 깨닫고 남강에 투신해 순국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장수군은 매년 음력 7월 7일 논개의 순국일을 맞아 생가지에서 추모제를 봉행하며 논개의 숭고한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지역 소식 통

진안농기센터, 버벌구 확산 대응 약제 지원

진안군농업기술센터는 버벌구 발생 및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가의 방제비 부담을 덜기 위해 관내 버 재배농가 1,804농가, 1,588ha를 대상으로 ‘버벌구 확산 대응 약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3,500만원이 투입되며, 농가가 버벌구 방제약제를 직접 선택해 구입할 수 있도록 약제 교환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농가에 배부된 교환권은 9월 18일까지 진안군 관내 농협 및 일반 농약판매업체에서 버벌구 방제약제를 구입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약제 교환권은 개별방제 농가의 경우 읍·면 농업인상담소를 통해 배부하며, 농협에서 실시하는 버 공동방제 참여 농가는 해당 농협에 교환권을 일괄 배부해 활용할 계획이다. 다만 공동방제 참여 농가 중 직접 방제를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농협을 방문해 본인의 교환권을 수령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대학생 장수사랑 사회공헌 사업단 해단식 열려

장수군은 (재)장수군에향교육진흥재단(이사장 최훈식)이 기념면에 위치한 장수만남의광장 이초레드 요리체험장에서 ‘2026년 대학생 장수사랑 사회공헌사업단’ 해단식과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행사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지역 곳곳에서 활동한 대학생 25명과 재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을 마무리했다. 참가자들은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지역사회 연구 및 사회조사 등 3개 분야에서 활동을 펼쳤다. 아동·청소년 학습지원 분야 대학생들은 학습지원 사업 현장에 배치돼 학생들의 학습과 진로 탐색을 도왔다. 전공 연계 프로젝트 분야 대학생들은 각자의 전공 지식을 살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지역사회 연구 및 사회조사 분야 참가자들은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탄소중립 실천 등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 국번없이 112
방문 :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